

경이롭구나, 송화강반 104년 전설의 그 랭면집

송화강이 넘실대며 흐르는 풍요로운 고장의 동시장거리에 랭면옥을 차렸더니 그 맛에 반한 천하 식객들이 백년 세월 끊이지 않고 찾아오니 실로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다. 산과 강을 끼고 있는 길림시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주요 집거지중의 하나, 이곳에 1920년에 문을 연, 104년 긴긴 세월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그 맥을 잃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전설의 랭면집이 있다.

길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업활동으로 변화한 곳이다. 1920년 상가들이 운집한 이곳에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자그마한 음식가게를 차리고 전문 랭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으니 그 음식점이 바로 오늘 길림 '백년랭면'의 원조인 '길흥랭면옥'이다. 그리고 랭면옥 주인은 김씨 성의 조선족이다. 길림에서 한참 떨어진 감길봉 대둔이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1920년에 길림 시내로 올라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조선의 금강산 일대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왔다고 한다.

'길흥랭면옥' 주인 김씨는 랭면외에도 개고기와 국밥 그리고 조선족 특색이 있는 반찬 몇가지를 메뉴로 내놓았는데 손님들의 인기를 받으며 의외로 장사가 잘되었으며 따라서 생활도 점점 윤택해져갔다. 10년 세월이 지나 1930년에 나이가 든 '길흥랭면옥' 주인은 가게를 아들 김옥연 부부에게 맡겨 운영하게 했으며 부친의 손아래에서 장사를 익혀온 김옥연은 이어받은 가업을 잘 키워나갔다. 음식 종류도 기존의 랭면과 개고기외에 각



종 무침, 떡, 순대, 불고기, 김치 등으로 훨씬 다양해졌으며 장사는 점점 성황을 이루나갔다.

1948년 김옥연은 가게를 원래 자리에서 좀 떨어져있는 2층짜리 상가로 옮겨와 전채를 고급스럽게 새로 장식하고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는데 그 후 '길흥랭면옥'은 점차 길림시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너도나도 즐겨 찾는 고급식당으로 발전했다.

1956년에 와서 36년 동안 김씨네가 경영해오면서 잘 나가던 '길흥랭면옥'은 모종 피치 못할 원인으로 길림 시음식복무회사에 합병되었으며 이름도 '길림시조선족식당'으로 개명되었다. 그 후 '길림시조선족식당'은 근 70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비록 랭면옥 간판이 바뀌고 주인도 언녕 바뀌었지

만 뒤를 이은 사람들은 당년 김씨의 랭면 만드는 비법을 넘겨받아 그 전통을 오늘날까지 소중하게 전승해오고 있다.

'백년랭면'의 이름은 명불허전이 아니다. 2000년 절강성 항주에서 열린 중국 제1회 미식대회에서 이 식당 요리사들은 5가지 랭면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한번에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 그 맛을 세상에 과시했다. '길림시조선족식당'은 원 국가 국내무역부로부터 '중화전통집' 그리고 중화료리협회로부터 '중화유명음식'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길림성업종관리판공실과 길림성료리협회에서는 '길림시조선족식당'에서 만드는 랭면에 '백년랭면'이라는 칭호를 수여해 그 오랜 력사와 전통을 충분히 긍정해주었다.

길림시 동시장의 '백년랭면'은 당시

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토배기들로 놓고 말할진대 맞집이기 전에 그때 그 시절의 풋풋한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장소다. 이곳에 와서 랭면 한그릇 주문해서 들어가 생각지도 못하게 십년 넘도록 보지 못했던 지인을 만나 반가워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회포를 나누는 일도 가끔씩 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왔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은 자기가 부모가 돼서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어 '백년랭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진행형이 되고 있다.

국수와 육수 그리고 고명이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져 탄생된 랭면, 비록 산해진미처럼 화려하고 돋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엇 하나 모자라지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고로 랭면은 일반 서민들의 소박한 식탁에서부터 궁중의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송화강반의 '백년랭면', 오랜 세월과 수많은 식객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오면서 증명된 미식이기에 맛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더 이상 필요없고 서둘러 내려서도 안될 것이다. '백년랭면'은 크게 원탕 랭면과 새콤달콤한 맛 두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원탕 랭면은 백년전 '길흥랭면옥'의 김씨 주인 시절부터 이어오고 있는 원조 그 맛이라고 한다. 현재 길림시 동시장에 있는 본점외에도 길림과 장춘에 가맹점이 몇군데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맛 따라 이야기 따라 '백년랭면' 본점을 한번 직접 찾아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 리철수기자

전 5개월 우리 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동기 대비 6.3% 성장



최근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전 5개월, 우리 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17.5조원으로 동기 대비 6.3% 성장했다. 그중 수출이 9.95조원으로 동기 대비 6.1% 성장했으며 수입이 7.55조원으로 동기 대비 6.4% 성장했다. 올해이래,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호전되고 있으며 대외무역의 호조세가 끊임없이 공고해지고 있다. 5월, 우리 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8.6% 성장했고 월별 증속이 한층 더 빨라졌다.

해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전 5개월, 우리 나라 일반무역, 가공무역, 보세물류의 수출입은 모두 성장했다. 그중, 일반무역 수출입은 11.4조원으로 동기 대비 5.6% 성장하여 우리 나라 대외무역총액에서 65.1%를 차지했다. 가공무역 수출입은 3.02조원으로 동기 대비 1.6% 성장하여 17.3%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는 보세물류 방식으로 2.42조원 수출입하여 동기 대비 16.5% 성장했다.

전 5개월, 아세안은 우리 나라의

제1대 무역동반자로 되었다. 우리 나라와 아세안의 무역총액은 2.77조원으로 동기 대비 10.8% 성장하면서 우리 나라 대외무역총액에서의 비례가 15.8%에 달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총 수출입은 8.31조원으로 동기 대비 7.2% 성장했다.

해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전기기계제품의 비율은 근 60%에 달하는데 그중 자동차터처리설비 및 부품, 집적회로와 자동차 수출이 성장했다. 전 5개월, 우리 나라에서 수출한 전기기계제품은 5.87조원으로 동기 대비 7.9% 성장하여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에 달했다. 그중 자동차터처리설비 및 그 부품은 5544.6억원으로 동기 대비 9.9% 성장하고 집적회로는 4447.3억원으로 동기 대비 25.5% 성장했으며 자동차는 3,297억원으로 동기 대비 23.8%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철광사, 석탄, 천연가스와 콩 등 주요 대중상품의 수입량도 증가되었다.

/ 인민일보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 기업 융자난 적극 해결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은 세밀한 조치와 정밀한 봉사로 기업의 융자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은 전 시 규모이상 공업기업과 적극 연계하여 중점기업의 대출 정황 및 대출자금 수요와 용도를 료해했다.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에서 기초 데이터를 제공받은 은행 사업일꾼들은 융자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운영 정황을 직접적으로 료해했다. 실지 조사와 료해를 거쳐 열두개 은행금융기구는 금융제품 39가지를 추려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융자 경로를 넓히고 융자 능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은 통정시와 연길시의 은행과도 소통하여 기

업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으며 금융봉사 업무와 봉사실례, 혁신모식 등을 소개하여 기업가들로 하여금 현재 어떤 금융봉사 자원이 있고 어떤 금융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료해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기구는 새로운 대출 평가 의거와 신용 수여 금액에 따라 경영주체의 융자 수요를 매칭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자주적으로 금융기구를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리스크 보상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융자 가능성을 높이고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내도록 했다.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전통 저당물이 부족한 기업들이 광호한 신용 경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통정시공업및정보화국

우리 성 국제금융서비스 플랫폼 은행 기업 융자관계장면시범 성공적으로 실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요구를 더욱 참답게 실행하고 기업의 융자 획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금융서비스 플랫폼의 은행 기업 융자관계응용장면 (이하 '은행기업 융자관계장면') 시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범 확대 첫날, 국가외환관리국 길림성분국의 지도하에 중국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신은행이 장면을 리용해 관내 6개 섬의 기업을 위해 성내 첫번째 온라인 융자 수신 신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수신 규모는 5억원을 돌파

했다. 은행기업 융자관계장면은 은행기업 융자의 쌍방향 선택을 위해 온라인 교량을 구축하여 외환기업과 은행기업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섬의 기업에 더욱 시장화, 다원화된 융자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은 크로스보더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의향 은행에 융자 수신 신청을 발기하는 동시에 의향 은행에 대해 기업의 크로스보더 신용 정보 확인 수권을 진행하게 된다. 은행은 크로스보더 금융서비스 플랫폼에서 기업의 융자여신 신청을 접수하고 실

제 업무 상황과 기업의 크로스보더 신용 정보를 결합하여 융자여신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플랫폼에 여신 금액, 기한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과 기업간 연계는 은행기업 신용대부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거래 원가를 낮추었으며 중소, 령세 섬의 기업의 융자 편의성과 신용대부의 가용성을 확실하게 제고시켰다.

우리 성의 여러 섬의 기업들은 은행 기업간 접합 장면을 통해 온라인 융자 수신 신청을 했는데 은행기구는 기업 신청을 접수한 후 국제금융서비스 플

랫폼을 리용해 기업에 대한 국제 신용 정보 조회를 진행하여 기업의 경영 상황을 더욱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수신 조건에 부합되는 량지의 대외무역기업을 고효율적으로 식별하고 획득하며 기업 수신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게 된다. 모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국제금융서비스 플랫폼과 은행기업 융자관계장면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우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도 은행의 업무 직원과 연락할 수 있어 기업이 융자를 찾는 어려움을 크게 줄이고 융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연변소 사육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

훈춘시 경신진 동부에 위치한 금당촌은 2022년에 길림성 '천촌시범' 중점 변경중심촌에 포함되었다. 최근 몇년간 금당촌은 립지 자원이 풍부하고 경작지의 총체적 규모가 비교적 크며 농산물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우세를 리용해 연변소 사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촌과 기업 협력' 모식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켜 향촌 진흥에 조력했다.

경신진 금당촌 사육기지에 들어서니 강철구조로 된 표준화 축사가 눈에 띄었고 일꾼들은 구유에 여물을 넣어주고 있었다. 방금 축사에 들어온 50마리 번식암소는 머리를 숙인 채 한가롭게 여물을 씹고 있었다. 새로 건설된 사육기지가 정식 사용된 데 대해 금당촌 촌민위원회 주임 곡연파는 매우 감격스러

워했다. 금당촌은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과 훈춘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2급 보증하에 루계로 향촌 진흥 자금 180만원을 신청했다. 바로 이 자금을 리용해 사육기지 대상을 건설했고 각축의 끊임없는 노력하에 금당촌합작사와 연변아크홀목축과과학기술유한회사가 합의를 이루어 촌과 기업 협력 협의를 체결했는데 년간 6만 원의 촌집체수입을 새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금당촌 주재 제1서기 장정화는 연변소 사육산업으로 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

/ 훈춘시융합미디어중심

5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 6년간 최고 기록

6월 5일, 중국물류구매연합회는 5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를 발표했다. 물류지수는 련속 3개월 반등하여 근 6년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113.9포인트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하위 지수중 총사업량지수, 농촌업무량지수, 물류효지수, 리행물지수, 만족도지수, 실재물지수 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는 아웃도어, 여행장

비, 배달요식업 등 여행 관련 전자상거래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 물류 총량지수와 농촌업무량지수는 각각 2.01포인트와 1.8포인트 상승한 129.8포인트와 129.7포인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속

도가 30%에 육박했다.

이 밖에도 년중 온라인 판촉활동이 량박함에 따라 각 주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업업 행사를 진행한 것도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국제방송